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꼭 연말에만 사용되어지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주위의 이웃들은 안중에도 없는, 가끔은 지옥이라 여겨질 만큼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혜 없는 자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것이 인생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등현시하는 현 사회의 부조리를 어찌 막아야 할지.....
이를 아는 자들만이라도 겸손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 내 나라, 내 국민, 내 이웃, 내 기족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빠른 세월이 벌써 8월을 맞이하며 2주간의 브라질 여행을 마치고 8월5일 다시 까보베르데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에 동참하는 공동체의 기도제목을 보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보베르데 조 남홍, 연설 선교사

8월 기도제목

- ◆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도록
- ◆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역이 되도록
- ◆ 리보네구아 교회 책임자로 위임받은 짜코, 링기 부부의 삶을 통해 감동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 ◆ Achada Grande 지역에 교회를 개척 할 처소를 허락 하시고 준비된 부지에 건축이 이루 어지도록(기독 국제학교와 교회를 위한 건축)
- ◆ 동역자들의 기정과 교회와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